



오륙도 칼럼



김 광 수

가을이다. 동서고금의 시인묵객들이 완숙한 여인으로 이미지화, 의인화한 그 가을이다. 우리의 시에서도 지천일 정도로 많고 다양하다. 현대시에서는 미당(未堂)의 '내 누님같이 생긴 꽃', 대여(大餘)의 '서쪽마을의 서 부인' 등이 압권이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시행이 있으니, 고은의 '서서 우는 누이여'가

그것이다. 과시 패러디의 달인답다. 유소년시절로 돌아가 보자.

아들딸 생기는 대로 낱아 건지는 대로가 내 자식이던 시절, 혹은 엄마에게 혹은 오빠에게 꾸지람 듣거나 얻어터지고 선 채로 훌쩍이는 누이가 가을 아니고 누가 가을이었는가? 누이를 괴롭힌 엄마나 오빠는 무지막지하게 더운 여름 아니겠는가?

내게 가을이란 늘 '서서 우는 며느리'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조선나라 대한나라 며느리로 다군다. 남편만 아니면 완전 남남인 시어머니 아닌가. 당신도 며느리시절 수월찮게 격였을 일인데도, 전지리 치며 배우고 욕하면서 따라한다고 당한 그대로 물려주려드니 난감하고 슬픈 일 아닌가.

잠시잠깐이나마 어서어서 나이

들어 좋은 세상 가기 바라던 시어머니, 여름 가듯 그렇게 가시고서야 비로소 미운 정 매운 정도 정인 줄 알고, 더욱 고마운 정인 줄 알고,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워, 낱아 붙세라 앉지도 못하고 서서 우는 늦칠 틈 그나마 착한 며느리다. 그 뿐인가 어디, 서서 울다가 가는 가을, 빠르기가 쏠살이다.

딸보다 며느리가 잘 살아보여도 시댁, 사위보다 아들이 잘나보여도 심정, 그 시어머니보다 한술 더 뜨는 남편이 더 미웠다. 언제 그리 효자였다고 효자언하는 원수, 친절보다 시집이 월등 높다고 은근슬쩍 더러는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원수, 명색이 신랑이었고 오늘날 남편이다.

물과 아홉한 무더위와 땀벌로 만물을 성숙케 하고 숙성시키는 일

이하면, 천지에 더불어 살 일 없는 여름이었다. 여름보다 월등 미운 것도 있었다.

기다리던 여름 반가운 더위라고, 죽마고우보다 백배 정겹다고, 발발한 영욕 한껏 드러내고, 잔뜩 멧가지 부러 가며 이기대로 해운대로 가는 남녀청춘의 건강한 아름다움, 그 모든 것이 여름가기를 비는 마음에 선종기질을 해왔다.

아뽕싸, 가을이다. 화려하나 짧은 노래자랑인 양 덩동땀 실로폰 소리만 남기고 여름은 가버렸다.

여름동안 심신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가꾸고 숙성시키기에 전심전력했는가? 여름보다 뜨거운 열정을 추회 없이 쏟아 부웠는가?

좋은 열매 알찬 수확을 위하여, 오는 가을을 당당하게 맞이하기 위하여, 노력했는가? 더위를 피하지

않고, 정정당당 땀 흘린 후의 휴식과 사랑을 위한 계획을 짜고 실행했는가? 남노소 가리지 않고 기혼미혼 가리지 않고, 동지를 틀고 있는 내 마을의 시어머니와 남편을 현명하고도 아름답게 모셨는가? 마침내 후회 없는 여름을 보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그리고 대답해보자.

가을이다. 비유하건대 시어머니인 무더위도 신랑인 땀벌도 스러지고, 미쁜 내 누님이, 어진 서 부인이, 애인인 가을바람이 오시는 계절이다. 그러나 냉정한 계절이다.

여름처럼 길지도 않고 심정 못지도 않으나, 치맛단 잡고 매달려도 제 가고 싶은 대로 재재바르게 가버리는 누님이고 부인이고 연인이자. 잠시 한눈과는 사이, 갈매빛도 소슬바람도 거두어 사라져버리는

무서운 계절이다.

이 가을, 우리 모두 마무리 기차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모아두고 겨울을 맞을 일이다. 이슬과 서리, 추상, 시월이 주는 두 개의 이미지다.

이슬과 서리 두려워하지 않는 가을사람이 될 일이다. 추상같은 마음가짐 품가짐을 지닌 시월사람이 될 일이다. 마침내 감동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할 일이다. 진실도 미덕도 감동이 없으면 하위고 위선이라 하지 않았던가.

부조리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이 비겁한 짓임을 알아야 할 일이다. 천생시인이자 의인이었던 수주(樹) 변영로(卞榮魯) 님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분노는/종교보다도 깊고/ 불블는 정열은/사랑보다도 강하다. 소설가



&lt;212&gt;

채 규홍



에 조금이라도 나누고 살자  
김정희(문현3동)



선용의

1000자 지혜

112

## 생각을 깨트려야

잡단 사람이건 못단 사람이건 그 사람만의 특기나 재능을 누구나 한두 가지씩은 다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재능을 심본 발휘하여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공한 사람이 없는가 하면 조금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대로 찌꺼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도 적지 않다.

비록 남보다 뛰어난 팔란트를 갖고 있으면서도 진작 자신은 재능이 있는 줄 모르거나 알아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좋은 기회를 놓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보통 사람들은 복(福) 또는 운(運)이라 할 지도 모르겠지만, 어느 날, 해자(海子)가 친구인 장자(莊子)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이 주신 호리병박의 씨를 심었더니 어찌나 큰 박이 열렸는지 두세 사람이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였어. 물을 담라도 무거워 들어올릴 수 없고 돌로 쪼개어 국자를 만든다 해도 물을 풀 수가 없어 그만 쪼개어 부셔버렸지."

장자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다.

"자네는 어째서 그렇게 머리가 안돌아 가냐? 그 아까운 것을..."

해자가 의아해 하며 물었다.

"호리병박이라면 물과 술을 담고 쪼개어 국자로 쓰는 것 외에 또 무슨 용도가 있어?"

"물론 작은 것은 그렇게도 쓸 수가 있겠지만 사람이 두세 명이나 들어갈 정도로 크다면 쪼개어 배라도 만들어 강이나 호수에 띄워놓고 고기를 잡는대거나 줄길 수도 있으며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겠어? 그런데 자네는 지금까지 호리병박을 물을 담고 술 담고 국자를 만드는 것 외에 아무 쪽에도 쓸 수 없다는 한 가지 생각에만 치우쳐 있었기에 그 아깝고 귀한 큰 호리병박을 박살내 버리고 말았더니 얼마나 바보짓을 한거냐? 나는 임금님이 자네를 시험하려고 호리병박의 씨를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

장자로 장자의 말을 듣고 있던 해자는 그제서야 크게 깨닫고 통탄을 했다.

성공의 비결은 바로 스스로 기회를 만들거나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심본 이용하는 것이며, 장벽 앞에 주저앉거나 실망하지 않고 뛰어넘는 것이며,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되면 과감하게 깨트리는 패기와 용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변역문화가



##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항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 보도블록 설치

대연6동에 사는 주민으로서 매우 일요일 대연2동 동성하이타운을 경유해 교회에 예배를 보러 간다. 디지털프라자~동성하이타운 까지는 인도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보행에 지장이 없는데, 모퉁이(커브길)에서부터 시장까지 약 30미터 거리는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위험천만하기 그지없다. 황새 점선이 그어져 인도라 할 수 없고 실상가점으로 불법주차로 인해 도로면이 좁아 유되어 차도 한 가운데를 무단으로 통과해야만 지나갈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은 차량이 지나가면 공포를 느낀다. 보행안전을 위해 주말 불법주차와 인도 보도블록 설치를 건의한다.

오민현(대연6동)

### 차선 막는 수거작업 안돼

저녁시간대 대연동 여성회관 앞에는 한 차선을 막고 쓰레기수거를 하고 있어 교통정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관계 당국의 빠른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여름철이면 악취발생의 요인으로 민원의 소지가

### ■詩가 있는 풍경

### 바다가 울고 있다

젖빛 하늘을 이고  
크러렁 크러렁  
바다가 울고 있다.

찌든 세파(世波)를 한탄하며  
크러렁 크러렁  
바다는 계속 울어댄다.

바다야 울든 말든 갈매기는  
반쪽만 남은 사장을  
지키겠다고 아우성이다.  
부지런히 경계선을 넘나들며  
망을 보고 있다.



박청수

시인·용호1동

꾸러럭 꾸러럭  
바다가 사장을 집어 삼킬까봐  
속으로는 울음을 삼키며  
부지런히 경계선을 해매고 있다.

###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 불법 주차 상시 단속

남구청 인근 동원로얄듀크아파트와 오양양자아파트 사이 이면도로 불법주차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 및 야간단속을 바란다는 대연6동 김민수 씨의 의견에 답변 드립니다. 해당지역은 상시 불법주차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으로 평일 09:00~20:00까지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차 정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건에 대하여는 남부경찰서에 민원사항을 건의·협의토록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강병철>

### ■ 나의 생각

### 승강기에서 인사를 생각하다



박능숙

도시에서 사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승강기를 이용하게 된다. 높은 층까지 오르내리는 몸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고, 시간까지 절약해주는 승강기. 승강기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동수단이다.

생활에 요긴한 승강기지만 대부분 잠깐씩 이용하게 된다. 눈 깜짝할 사이처럼 짧게 타는 시간에도 지켜야 할 예절은 여러 가지다. 그중에서 가장 으뜸이어야 할 것이 '인사'라 생각된다.

나는 승강기를 이용할 때마다 어린 시절 추억이 서린 골목길을 떠올리곤 한다.

그 골목길에서 뛰어놀다 어른들을 만나게 되면 잠시 멈추고 공손히 인사를 하곤 했다. 그런 행동들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보고 배운 것들이다. 각자 다른 집에 살았지만, 그 골목에서는 한 집안 식구나 다름없었다.

정겨웠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승강기에서 나는 누구에게나 먼저 인사를 건넨다.

집을 나설 때부터 만나게 되는 승강기. 그 안에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사람은 소위 이웃사촌이다. 요즘 아파트생활이라는 것이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을뿐더러 알리려고도 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반상회가 있어 얼굴이라도 익힐 수 있었고, 이웃에 관심이라도 가졌었다. 반상회마저 자취를 감춘 지금 유일하게

이웃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승강기다.

말패면 승강기에서 사람들은 서로 외면한 채 돌아 서 있다. 그럴 때 먼저 인사를 다가가면 평평하던 분위기가 한결 따뜻해진다.

초등학교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에게도 먼저 인사를 건넨다. 옆구리 찔러 줌 받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집에서 학교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하듯이, 승강기에서 타고내릴 때 웃어뜯게 인사를 빠뜨리지 않는다면 그 학생은 예절이 몸에 밴 것이다.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학생은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도 예의와 존중을 잃지 않을 것임을 짐작하게 된다.

학습지 교사나 물건 배달 오는 이들파도 만난다. 그들은 익숙하지 않은 승강기에서 긴장하거나 어색해한다. 잠시 긴장을 내려놓으라는 뜻에서 인사를 건넨다.

반갑게 화답하는 그들로 인해서 승강기 안의 공기는 이미 달콤해진다. 인사는 누가 먼저 해야 한다는 법칙 같은 것은 없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인사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면 되겠다.

어찌 아파트 승강기에서의 인사만 중요할까. 관공서나 사무실 승강기에서도 내가 먼저 가벼운 인사 정도 건네는 마음이 필요하다. 인사를 잘하다 보면 호감도 가질 것이고, 평판도 좋아질 것이다.

승강기는 사람이나 물건을 옮기는 수단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다. 그 좁은 공간이 기분 좋게 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다. 그 기준점은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는 일'이다.

기자·수필가

### 10월 남구생활체육회 교실에 참여하세요

교 실	요 일	시 간	정원	수업장소	수업 기간	접수 기간
생활체육(당구) 무료교실	월.수	10:30~11:30	30명	은행당구장 (용호1동 소재)	10.01~11.30	
생활체육(초급골프) 무료교실	화.목	10:00~12:00	20명	대연스포츠허브골프장 (대연4동 소재)	10.01~11.30	
생활체육(다이아몬드스) 무료교실	월.수.금	09:00~10:00	30명	한국댄스포츠포아카데미 (못골시장 롯데리아)	10.01~11.30	
장수체육대학(댄스포즈) 무료교실	화.목	13:00~14:00	30명	한국댄스포츠포아카데미 (못골시장 롯데리아)	9.01~11.30	
장수체육대학(게이트볼) 무료교실	월~금	15:00~17:00	60명	남부사업소 게이트볼장 (용호3동 소재)	9.01~10.31	
장수체육대학(그라운드골프) 무료교실	월~금	09:30~11:30	20명	백운포체육공원 (용호3동 소재)	9.01~10.31	2013. 9. 25 ~ 9. 30
수영	A반 B반 C반 D반 F반	12:00~12:50 13:00~13:50 14:00~14:50 12:00~12:50 13:00~13:50	30명 30명 30명 30명 30명	용호레포츠 (용호3동 소재) 대호레포츠 (대연4동 소재)		
탁구	A반 B반	10:00~11:30 11:30~13:00	17명 17명	유연탁구장 (유연로터리)		
요가	A반 B반 C반 D반	09:00~10:00 10:00~11:00 15:00~16:00 09:30~10:30	25명 25명 25명 25명	남구생활체육회 교 육 관		
저녁반	월.수.금	18:30~19:30	25명	바카스호프점 2층		
볼링	화.목	19:00~20:00	25명	우일볼링장 (문현1동 소재)		

※ 접수처: 남구생활체육회 ☎644-7330, 607-6389

### 알차고 유익한 남구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www.namgusports.or.kr)

■ 접수기간: 기존회원 - 10월 17일 부터 21일 까지, 신규회원 - 매일 23일 부터 (선착순 마감)

프로그램	대상	교육일	참가비	수업시간
수영	성인	월~금	66,000원	6시/7시/8시/9시/10시/11시/13시/14시/18시/19시/20시/21시
		월/수/금	44,000원	13시/14시/15시/16시/17시
		화/목	33,000원	13시/14시
	장애우	화/목	30,000원	15시
	초등	월/수/금	44,000원	16시/17시
아쿠아로빅	성인	월/수/금	25,000원	16시/17시
		화/목	30,000원	16시/17시
헬스	청소년이상	월/토	60,000원	12시/13시/15시/16시/17시
		화/목/토	60,000원	12시/13시/15시/16시/17시
주말헬스	청소년이상	월~토	44,000원 (청소년: 38,000원)	06:00~20:00 ※ 토: 09:00~18:00
		토/일	22,000원 (청소년: 17,000원)	09:00~18:00 (일요일은한달에 2회오픈)
골프 (일반타석)	누구나	월~금	110,000원 (청소년: 88,000원)	08시~22시 (매시간수업)
		토/일	77,000원 (청소년: 66,000원)	9시/10시
골프 (스크린타석)	누구나	월~금	143,000원 (청소년: 121,000원)	06시~22시 (매시간 수업)
		토/일	100,000원 (청소년: 85,000원)	11시/12시/13시/14시
요가	성인	월/수/금	40,000원	8시/9시/10시/11시/13시/20시/21시/22시
		화/목	30,000원	9시/10시/11시/13시

※ 장기등록할인: 3개월 (5%), 6개월 (10%)

※ 패키지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참조

(www.namgusports.or.kr)

###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인 최 景 鎬 / 편집주간 河 仁 相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37-7373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밀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